

한 아버지가 국수 두 그릇을 삶아왔습니다. 당시는 계란이 매우 귀했던 시절이었는데 한 그릇에는 계란이 하나 얹어져 있고 다른 그릇에는 계란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고르거라." 아들은 계란이 있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거의 다 먹어 갈쯤 아버지 그릇에는 국수 밑에 두 개의 계란이 있었습니다. 후회하는 아들에게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눈에 보이는게 다가 아니다 남을 쉽게 이기려 하면 오히려 네가 지는 법이다."

다음날 아버지가 국수 두 그릇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아들을 불렀습니다. 한 그릇은 계란이 있고 한 그릇에는 없었습니다. "고르거라." 이번에는 아들이 당연히 계란이 없는 그릇을 골랐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국수 밑을 찾아봐도 계란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경험에 의존하지 마라. 삶이 너를 속일 것이다 그럴 땐 화를 내거나 실망하지 말고 교훈으로 삼으라."

또 다음날 아버지는 국수 두 그릇을 중 하나를 고르라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가장으로서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해오셨으니 아버지께서 계란이 있는 국수를 드시는 게 당연합니다 저는 없는 국수를 먹겠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국수에는 계란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아들이 고른 국수 밑에는 계란이 두 개나 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남에게 베풀어라 그러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너에게 되돌아온다는 걸 잊지 말거라."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경험은 때로 우리를 속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식 이전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합니다.

저희들이 살면서 큰 기쁨과 큰 승리의 순간을 경험하고나면... 꼭 찾아오는 것이 있

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 공허감, 영적 상실감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9장에도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그와 같은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처럼 엘리야 선지자가 영적으로 공허감과 영적 우울증 속에 헤매이기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잘 아실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을 결코 멈추지 않았죠. 엘리야는 목숨이 위태로울 때에도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에게 증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갈멜산에서의 영적 싸움 잘 아시죠. 아합 왕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우상 숭배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의 어떤 자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많은 신들 중에서 참 하나님을 찾는 싸움이었고, 엘리야는 여호와/야훼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잠시뿐이었습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하자 그는 순식간에 브엘세바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로렘나무 아래에 앉아서, 영적으로 지칠대로 지쳤고 육적으로도 굶주린 엘리야는 하나님께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죽을 것 같은 건 공황장애라고하고, 죽고 싶은 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지금 엘리야는 영적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대승을 경험한 바로 직후에 말입니다!! 이유는 10절에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난 혼자라는 거예요... 하지만 엘리야의 이러한 하소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오히려 음식과 물을 공급하시고 또 다른 긴 여정을 준비케하셔요. 우리들도 누구나 ‘난 혼자야...’라고 느껴지는 순간

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통 인생의 폭풍이 닥치고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큰 기쁨과 승리를 맛본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은 더 크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결단코 혼자가 아니에요! 난 혼자라고 부르짖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일깨워 주세요. 정말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혼자가 아니었고, 또한 바알에게 무릎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 칠천명을 남겨두셨기에 혼자 아니었죠.

지금 바로 옆에 누가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셔서 우리를 하나의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혼자인 것 같고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질 것 같을 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힘이 다할 때까지 기도한 것 같을 때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낙심하고 낙심한 엘리야에게 '내 앞에 서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주목해 보세요. 11절을 잘 보세요. 엘리야는 '여호와 앞에 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엘리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끊임없이 점검해야 합니다! 예전에 큰 믿음으로 서 있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과 내일의 믿음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 순간에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말입니다.

사실 엘리야만큼이나 기적을 많이 행한 선지자도 성경가운데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랬기에 스스로 말하길 10절에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 특심이다"라고 자부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 믿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13절 말씀에 주목해 볼 엘리야의 행동이, 자신의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시대에는 감히 하나님의 이름 즉, 야훼/여호와 이름을 입에 담지도 못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죽는다고 믿었습니다.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되면 죽는다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으냐?’하며 그들을 찾으실 때,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즉 죄를 짓고난 후 그들의 첫 행동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감추는 것이었죠.

마찬가지로 앞에서는 난 참 특별하고, 이렇게 특별한 난 혼자 밖에 안남았다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 자신의 연약한 (죄된(하마르티아-missing the target): 하나님 앞을 떠나있는/하나님 앞에 지금 서있지못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거예요!!! 그리고는 겉옷으로 그의 얼굴을 가렸어요! 갈멜산에선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었는데,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이세벨만 보고 두려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니까, 난 혼자인 것 같고, 버림받은 것 같고, 내가 주를 위해 참 열심히 살았던 것만 보이고, 내게 어찌 이룰 수가 있나 했는데, 하나님 앞에 막상 다시 서보니까, 나의 죄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를 다시금 살린 것은 산을 쪼개고 땅을 가르는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고 그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있든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리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들에

겐 구체적으로 성경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도 인생의 끝없는 풍파를 지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강한 바람이 지나치고, 어떤 분들에게는 삶에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불 가운데 지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서는 그 소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 앞에 다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놓이기 쉬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새겨놓으신 십자가 사랑의 언약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주 앞에 서는 날까지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 속삭여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날마다 새롭게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